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제한없음		
배포일	2020. 10. 14.(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수상자 선정: 학생(학생지원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대외협력팀)	문의	홍보팀(02-880-5054, 9072)

서울대학교 제74주년 개교기념식

□ 서울대학교는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74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보직자, 학(원)장, 각 수상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유튜브)**으로 행사를 실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 오세정 총장은 기념식사에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학습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직무를 수행하며, 의연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자랑스럽다” 며 “국민적 성원과 기대에 맞추어 연구와 교육역량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해 갈 것” 을 강조했다. 【전문 첨부1】

□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한다.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전자공학과 졸업)와 성기학 영원무역 대표이사 회장(무역학과 졸업) 등이 선정되었다. 【주요 공적사항 첨부2】

서울대학교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지난 1991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으
로 선정해오고 있다.

□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20. 10. 14.)

- 국민의례
- 장기근속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 표창(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 개교기념사(오세정 총장), 축사(이희범 총동창회장)

[붙임] 개교기념사(총장),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주요 공적사항,
축사(총동창회장)

[붙임1] 개교기념사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비전과 역량을 믿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학의 74번째 돌을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간 경험했던 어려움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던 미증유의 역경이었습니다. 특히 교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활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기에 학생들이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학습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직무를 수행하며, 의연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자랑스럽습니다. 생일날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나를 가능케 해 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미래 계획을 세우며 현재를 점검해 봅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에서 뜻깊은 해입니다.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런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향유하며 학문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의 지난 74년을 돌아보며 이번 생일에는 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동문님들을 기리고자 합니다.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분들과 4·19혁명에 참여하여 희생당한 분들께는 과거에 명예졸업장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분들도 있어, 이 분들을 위한 신고 및 조사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 중에 돌아가신 분들과 아직 학적 회복이 안 된 분들을 위한 명예졸업장 수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서울대학교를 빛내신 분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분들입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나 강제징집 등을 당해 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당시 강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는 하나, 대학이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분들께 오래 전에 전했어야 할 진심의 위로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현재의 우리는 사회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히 고민하고 있는가, 양심의 자유와 학문기관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74년간 여러 굴곡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어수선했던 건학 초기의 혼란을 넘고 6·25전쟁

시 피난지에서의 전시연합대학 체제를 거쳐, 관악으로의 캠퍼스 종합화,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출범 등 커다란 변혁들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학문의 수월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추구하였고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저는 작년 개교기념식사에서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몇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학제간 융합연구와 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의 효율화와 학술역량을 강화하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대학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 왔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하였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전공을 개설하였습니다. 시흥캠퍼스의 1단계 사업이 완공되었고, 낙성대와 대학동의 벤처밸리 사업도 출범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원 육성 BK21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단(팀)이 선정되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최소 10개 학문분야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SNU 10-1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대학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짐작하지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국민적 성원과 기대에 맞추어 연구와 교육역량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며 성찰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자신과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실천해나간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각자 제 자리에서 묵묵히 분투하고 계신 서울대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의 역경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쏟아 서울대학교를 명실상부하게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으로 계속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서울대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께 도움과 희망을 드리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붙임2]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주요 공적사항

□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혁신적으로 도약시킴
- 다수의 세계 최초 메모리 기술 개발로 세계 최강 메모리 반도체 국가로 선도
- 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문화 혁신에 기여
- 서울대 공동연구소 설립으로 서울대와의 산학협력 강화
- 인재 육성에 앞장서며 미래 국가 역량 구축
- 관련 산업 주요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 다양한 활동 등으로 반도체 최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홍보

□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 활동 및 장학 사업 지원
 -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기부 등
-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여
 - 우석경제관 건립 및 아시아 연구소 건립 등 기금 기부
- 대외활동을 통한 서울대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임
 -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지에 현지법인 설립하여 현지국의 고용확대, 수출증대 등 국가의 위상 높임
 -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수출실적 달성
- 국제적 차원에서 공헌활동
 - 대한적십자, 월드비전 등을 통하여 국내외 자사제품 의류 기부
 - 베트남, 중국, 북한 등 물품 기부(약 700억원)
 -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스포츠 의류 공급, 후원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억원 기탁

[붙임3] 축사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 모교 교직원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청명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 43만 동문과 함께 모교 개교 74주년, 개학 1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대면하여 성대하게 기념하지는 못하지만,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과 교직원 여러분, 지난 74년의 우리 서울대학교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 최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위치를 충실히 지켜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께서 모교를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기술,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전세계라는 큰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과 모교를 빛내주신 성기학 동문님, 김기남 동문님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을 위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되신 교직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모교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는 큰 비전 아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혁신적 지식 생태계구축’, ‘지식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대학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실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흥캠퍼스의 컨벤션 센터, 교육동완공 등 1단계 사업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특히 미래선도 중점 학문 분야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10-10 프로젝트’를 가동해, 서울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세계 10위권 학문 분야를 선정,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토마스 프리드먼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에게 사회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극인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제 모교는 코로나 이후의 인류공동체의 앞

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할것입니다. ‘겨레의 대학’ 으로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세계의 대학’ 으로서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인류 문제 해결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동창회도 43만 동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평생 학습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올해 총동창회는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34억원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 동경대학 등 서울대학교가 경쟁해야 할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서울대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 지식함양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원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민족의 큰 성원속에서 국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집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선배들이 쌓아 올린 결실이며, 또한 우리와 후배들이 장차 끊임없이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과업입니다. 모교가 세계 속의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큰 꿈을 이루도록 모교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애교심을 더욱 발휘해 나가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교의 개교를 축하하며, 모교와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이 희 범